

제 2 교시

설문 영역 해설서 (나형)

출수형

상담·코칭센터에서는 지난 11월 23일, “이곳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!”라는 주제로 재학생들의 자기정체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증진을 돕고, 진로탐색에 따른 관심사 공유 및 자기실현을 위한 장(場)을 마련하여 재학생 인식도를 조사하였다. 이에 따른 인식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.

객관식

1. 학생들의 최근 3개월 간 심리상태를 불안, 분노, 우울·무기력, 감정기복, 포기라는 총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불안 평균은 2.23, 분노 1.89, 우울·무기력 2.24, 감정기복 2.17, 포기 평균은 1.74로 모든 정신건강 평균들이 ‘평균 이하’였다. 다른 정신건강 점수들과 비교했을 때 우울·무기력과 불안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, 심리상태의 ‘자주 이상’에 해당하는 비율 중에서는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가장 많았다(61명, 36.3%).
(1: 전혀 없다, 2: 가끔 그렇다, 3: 자주 그렇다, 4: 거의 항상 그렇다. 결측인원 2명)

	1	2	3	4	결측
불안(M:2.23)	20.8	41.7	29.2	7.1	1.2
분노(M:1.89)	38.1	36.9	20.2	3.6	1.2
우울·무기력 (M:2.24)	23.2	41.7	23.2	11.9	-
감정기복(2.17)	28.0	38.7	19.0	13.1	1.2
포기(1.74)	47.6	32.1	11.9	5.4	3.0

2. 심리적인 불편함을 느끼는 영역으로는 학업이 123명(39%)으로 가장 많았으며, 대인관계 64명(20%), 이성관계(13%), 내적 갈등(10%), 성격(9%), 경제(8%)의 순으로 나타났다. (복수응답 포함, 결측인원 6명)
 ① 성격 9%
 ② **학업 39**
 ③ 대인관계 20
 ④ 이성관계 13
 ⑤ 경제 8
 ⑥ 가족 2
 ⑦ 내적 갈등 10
 ⑧ 기타(진로, 실습, 동아리, 게임, 미래 등)

3.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먹거나 잠을 잔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130명(35%)으로 가장 많았으며, TV나 게임, 인터넷 사용(72명)과 친구나 연인과 대화(74명) 각 20%, 담배나 술마시기로 해소하는 사람이 38명(10%)의 순으로 나타났다.

- ① **먹거나 잠 35%**
- ② TV·게임·인터넷 20
- ③ 담배나 술 이용 10
- ④ 친구/연인과 대화 20
- ⑤ 부모님/형제(친척) 연락 6
- ⑥ 종교생활 3
- ⑦ 상담/병원 이용 1
- ⑧ 운동/미술관 관람 5
- ⑨ 기타(노래, 문화생활, 생각안함, 공연관람)

4. 심리적 불편함에 대하여 상담코칭센터 방문의향을 조사한 결과 있다 83명(49%), 없다 67명(40%), 잘 모르겠다 6명(4%) 순으로 나타났다. (결측인원 12명)

- ① **있다 49%**
- ② 없다 40
- ③ 잘 모르겠다 4

4-1. 방문할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문제나 어려움이 심각하지 않고(30%),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(25%)하는 이유 순이었다. 그중 “안 좋게 보일까봐”(2%)와 “비밀보장이 안 될 것 같다”(4%)는 생각은 실제로 경험한 학생들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므로 혹시 이러한 인식이 있는 재학생은 반드시 상담코칭센터로 개별연락을 주실 경우 새로운 경험을 제공드릴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 또한 시간이 없거나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는 분에 해당하는 분이 본 센터로 연락주실 경우 화이브 미니 음료나 생수를 제공드릴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.

- ① 안 좋게(문제 있어) 보일까봐 2%
- ②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25
- ③ **문제나 어려움이 심각하지 않아서 30**
- ④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11
- ⑤ 오픈하기 싫어서 8
- ⑥ 비밀보장이 안 될 것 같아서 4
- ⑦ 시간이 없어서 16
- ⑧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라서 3
- ⑨ 기타(바쁘다, 내가 해결해야 한다, 발걸음 안 떨어진다, 귀찮다, 순간해결 후 되돌아갈 듯)

제 2 교시

설문 영역 해설서 (계속)

홀수형

객관식

5. 우리대학에 상담코칭센터가 있다는 것은 90.5%의 학생들이 알고 있었다.

- ① **안다** 90.5%
- ② 모른다 9.5

6. 상담코칭센터 기능에 대하여 개인상담·심리검사를 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36.8%로 가장 많았고, 문의나 고충사항이 있을 때 가는 곳(27.2%), 연결고리 등 멘토링 연계하는 곳(18%), 학업계획상담하는 곳(14.4%)이라는 인식이 있었다.

그러나 교수님께 개인의 문제를 전달하는 곳(2.3%), 성적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곳(1.3%)이라는 것은 명백한 오해이고, 본 센터는 개인의 이익에 침해될 수 없어야 한다는 윤리위에 서는 곳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^^!

- ① **개인상담·심리검사 하는 곳** 36.8%
- ② 교수님께 내 문제를 전달하는 곳 2.3
- ③ **문의·고충사항 있을 때 가는 곳** 27.2
- ④ **학업계획 상담하는 곳** 14.4
- ⑤ **연결고리 등 멘토링 연계하는 곳** 18
- ⑥ 성적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곳 1.3
- ⑦ 잘 모름 0
- ⑧ 기타()

7. 이번 상담애널 이벤트가 상담코칭센터를 이해하는데에는 총 63.7%의 도움이 되었다. 그러나 아직도 센터를 제대로 이해할만한 경험이 없는 인원도 많이 있으므로 앞으로도 학생여러분께 더 가깝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, 지속적으로 다가가는 센터가 되도록 할 것이다. (결측인원 2명)

- ① **매우 그렇다** 24.4%
- ② **그렇다** 39.3
- ③ 아직 잘 모르겠다 33.9
- ④ 매우 그렇지 않다 0
- ⑤ 사실 관심 없다 1.2

단답형

8. 본 설문조사는 재학생 168명이 참여하였고, 학과별 분포를 살펴보면 간호학과 31명(18.5%), 의예과 37명(22%), 의학과 76명(45.2%), 치위생학과 22명(13.1%), 2명의 결측인원(1.2%)이 있었다.

- 간호학과31명(18.5%)
- 의예과37명(22%)
- 의학과76명(45.2%)
- 치위생학과22명(13.1%)

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, 충전 가득한 겨울방학되시기를 바랍니다♥